



#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http://orthodoxkorea.org)



사순절 제5주일  
(성 마리아 이집트의 수녀)  
성 그레고리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1조 † 조과 복음 9)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 성 마리아 이집트 수녀 찬양송  
    비고정 축일 성가집 51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사도경 : 히브리 9,11~14 --  
    234, 봉독서 457
- 복음경 : 마르코 10,32~45 -141
- 성모송 ----- 62

## 회개의 본을 보여준 성녀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구원의 길을 보장해준다. 그러므로 회개란 생각과 생활방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기념하는 성 마리아 이집트의 수녀는 회개의 본을 보여준 성녀이다. 퇴폐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십자가 현양 축일 성찬예배가 거행되는 성당에 들어가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 많은 방탕 생활이 고귀한 십자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을 깨닫고 참회함으로써 성당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십자가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그녀는 요르단강을 건너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십 칠 년 동안 가혹한 환경에서 금식과 기도의 엄격한 수덕 생활을 하였다.

교회는 성녀를 회개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상의 천사가 된 분으로 기억한다.

# 겸손의 덕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겸** 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이다. 겸손하지 않고는 진실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 죄의 모든 근원은 겸손하지 못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르코 10,42-45)

하지만 사탄은 겸손조차 악의 도구로 이용한다. 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겸손한 체하며 위선을 부린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마태오 7,15) 사탄은 겸손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강한 것을 좋아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여 어디서든 대우받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며,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겸손으로 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사탄은 교만으로 가득차서 영적인 눈과 마음이 가려져 겸손의 가치를 무시하여 하느님



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줄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후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채고는 그분을 박해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자신이 승리한 줄 알고 좋아하였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교만한 사탄은 하늘나라의 심오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겸손으로 그 구원의 뜻을 완성하신 것이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겸손한 마음과 행동이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어 가난한 목수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겸손의 덕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먼저 남에게 겸손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의 덕을 쌓고 나아가는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주님은 겸손의 덕을 갖고 실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 창의적인 사랑

아타나시아 봉사자

어느 의사 한 사람이 앞에서 오는 택시를 보고 손을 들었다. 차를 타면서 보니 택시 기사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그 인상이나 태도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다.

의사가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 정말로 택시 기사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라고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되셨단 말입니까? 왜죠? 해고당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재직 중입니다.”

“그럼, 왜죠? 수입이 적으신가요?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며 보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입은 다 택시 주인에게 가져다줍니다.”

“아니, 왜요? 통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택시 주인이 병중(病中)이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돈 없이 지내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가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버는 돈을 그에게 가져다주는 겁니다.”

“교수님, 저에게 정말로 값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이 운전대는 가장 훌륭한 자리입니다.”

의사는 택시에서 내려서는 모자를 벗어들고 경의(敬意)를 표한 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갔다. 자신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창의적이다. 거기에는 그 나름의 위대함이 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랑이 말하는 바를 실천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낙원의 한 부분이 되게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베풀어진다. 창의적인 사랑은 기쁨의 원천이다. 실천적인 사랑은 사회성의 표출이다. 사심 없는 사랑은 행복의 원인이 된다.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 행복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초청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며 호응하기로 하자.

“사랑은 사욕(私慾)을 품지 않습니다.”

(1고린토 13,5)



##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 \* 4월 13일(수), 15일(금)  
오전 9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4월 16일 (토) 오전 9시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소식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애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 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앞마당 꽃 심기**  
오늘 성찬예배 후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 대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4월 17일	성지주일	오전 8:45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00	신랑 의식
4월 18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19일	성 대 화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20일	성 대 수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성유 성사
4월 21일	성 대 목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주님의 거룩한 고난 의식 (12 복음 봉독)
4월 22일	성 대 금요일	오전 9:00	대시과 (1, 3, 6 시과)
		오후 3:00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오후 6:00	에피타피오스 의식
4월 23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부활절 의식 및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4월 24일	부활주일	오전 11:00	사랑의 대만과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총대주교

-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워하라.
- 죄에는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지 만, 회개에는 자유와 상처에 대한 깨끗함이 있다.